

㉸ 신년사 ㉸



법무대학원장
채이식

고대 법대 교수 가족 여러분!

기축(己丑)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전 세계의 금융파동과 우리의 경제 또한 심각한 어려움 속에 직면했습니다만, 우리 고대인은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사회 곳곳에서 항상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에 가슴 뿌듯하고 마음 든든합니다. 이는 자유·정의·진리라는 고대 정신을 바탕으로 각자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친 들판의 들풀처럼 펼쳐 일어나는 불굴의 정신, 시의에 따라 좌고우면 하지 않는 정의감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대인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고대 법대 교수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한 해, 모교로서는 매우 뜻 깊고 소중한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고려대는 새로운 미래와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의 연구 선도대학, 그리고 글로벌 명품인재 양성기관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교수들이 교우회 모임에 적극 동참하여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다채로운 행사들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다시금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흠어진 교우회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 후배간의 따뜻한 우정이 영원히 이어져 가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100년이 넘는 혁혁한 전통을 지닌 고대인의 기상과 열정의 애교심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자긍심을 마음껏 발휘하여 위상을 드높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맥도 영원히 이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큰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법무대학원장 신년사

특별히 법대는, 지난 해 사법시험 최다 합격을 이뤄낸 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로스쿨로서 고대인의 우수성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대 교수 여러분!

2009년은 그 어느 때 보다 모교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 법대 교수 가족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와 준비된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한 대학으로서의 중요한 여러 과제를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모교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법대를 위한 교수 여러분의 선각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 제2의 도약을 위한 시대를 열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가야겠습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대 로스쿨의 발전에 힘을 모아 미래의 주인공들인 젊은 세대들이 우리 대학에서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법대 교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대 교수 여러분!

우리는 고대인이라는 같은 배움터를 거쳐 나온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결코 쉬이 지워버리지 못할 호랑이라는 공통의 상징을 가슴 밑바닥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느 학교와는 좀 다른, 아니 그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끈끈한 연대의 밧줄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 없는 교우회는 상상할 수 없으며, 교수 없는 모교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고 그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교수들, 모든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전력을 다해나가는 길 뿐입니다. 교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에도 고대 법대인의 당당한 행진을 보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법대 교수 여러분, 기축(己丑)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만사형통하고, 기쁨과 보람이 넘치며,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대 소식 ◆

● 교수 동정

심재우 명예교수

심재우 명예교수는 2008년 10월 17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 양일에 걸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개최된 그의 스승 Werner Maihofer 교수의 90회 탄신기념 콜로크뵐에 참석하여 “Die Rechtsphilosophie des Als-Seins und die Lehre über den richtigen Namen bei Konfugius” 라는 기고 논문의 요지를 발표하였다. 이 기념 논문집 「Festschrift für Werner Maihofer zum 90. Geburtstag」은 2009년 3월에 베를린에서 출간된다.

채이식 교수

채이식 교수가 2009년도 국제해사기구(IMO) 법률위원회 의장에 선출됐다고 외교통상부가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에 밝혔다. 2005년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의장에 선출됐던 채 교수는 23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94차 법률위에서 의장에 다시 뽑혀 4선에 성공했다. IMO는 해운·조선 등 국제해사문제를 다루는 유엔 산하 특별자문기구로 1959년에 설립돼 169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법률위는 IMO 협약의 법률적 해석과 검토를 주관하고 국제 해운 및 해양 환경 보전에 관한 국제법 규칙을 제·개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금번 채 교수의 국제해사기구 법률위 의장 당선으로 세계적인 해운국인 우리나라가 해사 관련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나라 해사법 발전을 통한 국익의 보호가 기대된다. 한국(사법시험 11회) 및 영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채 교수는 15년 가까이 법률위 위원 및 부의장으로 활동해 왔다. 국제 해상법 분야 전문가로 저서로는 《프랑스 해사척령》, 《나폴레옹 상법전 해상편》 등이 있다. 1993년 한국선급 법률고문, 2004년 한국해법회 회장, 1995년~1998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대표, 1998년~2000년 한국해양방제조합 법률고문

을 역임했다. 1987년부터 모교 법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노형 교수

박노형 교수는 2008년 9월 24일 수요일에 홍콩시립대 법대와 중국 호남사범대학 법대에서 “광우병쇠고기와 SPS협정”에 관한 특강을 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였으며, 2008년 10월 24일 금요일에는 중국 천진에서 개최된 중국국제경제법학회 초청 국제세미나에서 국제경제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하고 좌장을 맡았다. 박 교수는 2008년 12월 1일 월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에 관한 영국법제도 연수를 받았다.

이상돈 교수

이상돈 교수가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에 법무부와 전국범죄 피해자지원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참석해 「형사사범의 세 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에 대해 발표했다.

정승환 교수

정승환 교수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수용자의 사회적·생활권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효질 교수

안효질 교수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이 개최한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음악저작권 문제 해법을 찾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로서 2008년 11월 21일 금요일에 국회 의원회관 125호 간담회장에서 개최됐다.

박세민 교수

본교 법과대학에서는 국내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주)삼성화재와 체결한 ‘자동차보상 법률전문가 과정’ 위탁교육을 2008년 9월 16일 화요일부터 10월 10일 금요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하였다. 박세민 교수의 주관 하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8개 법률과목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판정’ 과목을 본교 법대 교수 8분과 본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주)삼성화재의 자동차보상부담 팀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104시간의 위탁

교육 전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10월 10일 금요일 수료식에서는 하경효 법과대학장이 수강생들에게 수료패를 전달하면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한국유럽법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2008년 11월 1일 토요일에 한국유럽법연구회 제8차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럽 서비스 계약법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Law on Service Contracts)을 주제로 다루었다. 하경효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관심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 김영란 대법관 초청 강연회

2008년 11월 19일 수요일에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판사를 초청해 ‘법치주의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19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지에서 근무했으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재직 중이던 2004년 8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관 별세



유엔 고위직에 오른 첫 한국인이었던 박춘호(朴椿浩)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모교 법과대 석좌교수)이 향년 78세 2008년 12월 12일 금요일 오전에 노환으로 별세했다. 박 재판관은 2008년 초 혈액암이 발병해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도중 최근 증세가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재판관은 국가 간 해양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5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1996년 당선됐고 2005년 9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대학 재학시절 한·일 간 어업분쟁을 보고 해양법 연구에 뛰어들어 40여 년간 해양법 연구에 전념했고 최근까지도 독도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1997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법단체인 국제법학회 회원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박춘호 재판관의 운명

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한평생 해양법 분야에 남기신 고인의 고귀한 업적을 높이 기린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고인의 업적을 기려 국민훈장을 추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 서울 중앙지역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 제2차 학술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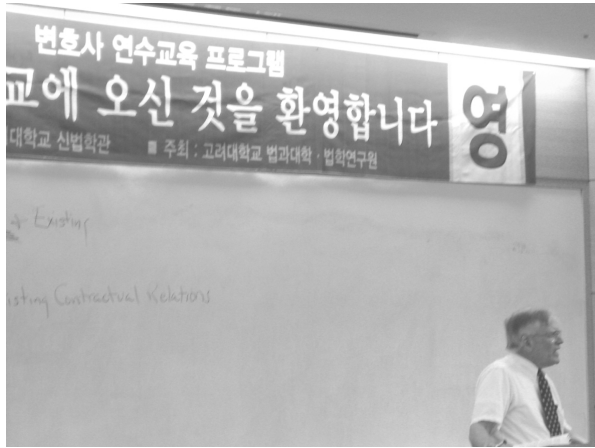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에 신법학관 401호에서 「한국 민법학에 蝸角之爭은 없었는가-민법 제정 50주년, ‘對酒其二’를 노래한 白居易의 눈으로 민법학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본교 법과대학 명순구 교수의 발표와 「수사상 강제체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중앙지검 김하중 부장검사의 발표로 서울 중앙지역 법학교수 검찰 실무연구회 제2차 학술회의가 열렸다. 관심 있는 대학원생과 교수들도 참여하였다.

● 법학연구원 소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는 2008년 11월 27일 목요일에 “중국 회사법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중국 정법대학 상법전공 오일환 교수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개정된 중국 회사법이 대륙법계에서 최초로 회사의 사회적 책임, 회사 법인격 부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큰 입법적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그 적용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 본 강연에서는 중국의 개정 회사법의 내용 중 한국 회사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에 있어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다루었다. 중국 유학생을 포함하여 중국법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고려대학교 변호사 연수 교육이 법학연구원의 주최로 2009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연수 교육은 2009년 3월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개원을 기념하여 해외 석학을 초빙하여 1월 5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특강으로 개최된 것이다. 해외 석학은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St. Louis)의 Charles R. McManis 교수이고, 특강 주제는 지적재산과 부정경쟁(Intellectual Property and Unfair Trade

법 대 소식



Practices)이었다. 미국 IT법 분야의 권위 있는 McManis 교수의 고대 특강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강의로, McManis 교수의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었고, McManis 교수의 저술인 Intellectual Property and Unfair Competition(Nutshell, 6th)을 교재로 사용했다. 본 특강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위하여 야간에 진행됐다. 9일에는 본교 법과대학 김일수 교수와 이대희 교수의 강의도 진행됐다.

● 안암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2008년 11월 29일 토요일에 안암법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복룡 회장(충남대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된 학술대회는 이진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기조강연으로 이어졌다. 학술 발표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고 관심 있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공법 분야에서는 “법

규적효력의 무용성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에 대한 허완중 박사(성균관대 BK21)의 발표와 “행정계획 중 계획재량영역”에 대한 백승주 박사(고려대 강사)의 발표가 있었다. 형사법/법철학 분야에서는 “추상적 위험범의 형사정책적 유용성”에 대한 김성은 박사(형사정책연구원)의 발표와 “로스쿨에서 기초법의 교수방법”에 대한 고봉진 교수(제주대)의 발표, 민사법/노동법 분야에서는 “특정물매매와 하자 없는 급부의무”에 대한 박영목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의 발표, “미국 노동법상 3자간 노무제공 관계에서의 사용자 책임의 구조”에 대한 김미영 박사(고려대 강사)가 있었고, 상사법 분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적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에 대한 이동승 교수(상지대)의 발표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에 관한 고찰”에 대한 김희철 교수(원광대)의 발표가 있었다.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의 파산절차상 지위에 관한 연구”에 대한 김형률 판사(부산지방법원)의 발표와 “민법상 조합의 민사소송상의 지위”에 대한 김경옥 교수(고려대)의 발표가 있었다. 국제법 분야에서는 “국가 면제의 제한-인권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에 대한 오승진 교수(단국대)의 발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FTA 원산지 특례규정 활용방안”에 대한 고준성 박사(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 Global Legal Clinic - 태안 기름 유출사고 1주년 특별강연

2007년 12월 7일 태안반도 해안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이 되어, 고려대학교 Global Legal Clinic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IOPC의 보상한도를 현재의 약 3천억원에서 1조원이상으로 높이는 국제협약(“1조원 클럽”) 가입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 4일 목요일에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IOPC Fund) 보충기금협약 가입의 타당성 분석’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동오 선임연구위원을 연사로 초빙하여 태안현황 및 GLC 활동상황 간략 보고와 강연과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총 80분 정도)특강을 진행했다. GLC는 “1조원클럽” 가입의 타당성을 분석 검토하고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고대학우들이 여러모로 관심을 보여주어 왔던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과거와 미래를 정리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는 기회도 되었다.

● 통상법연구센터 주최 Reisman교수 특강

통상법연구센터는 2008년 12월 18일 목요일 신법학관 401호에서 미국 Yale Law School의 Michael Reisman 교수를 초청하여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Policies and Modalities”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리즈만 교수는 국제투자법 등 국제법 분야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발간한 저명한 학자이며, 주요 국제중재사건에서 중재관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강연은 국제투자규범과 국제중재에 관한 권위 있는 교수의 고견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학생 소식 ◆

● 고려대, 사법시험 역대 최다 합격자 배출

법무부가 발표한 제 50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려대 출신은 183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려대가 배출한 역대 최다 사법시험 합격자로 기존 최고 합격자는 지난 2005년 177명이었다. 고려대 출신 사법고시 최종합격자는 2007년 158명을 비롯해 △143명(2006) △177명(2005) △166명(2004) △170명(2003) △176명(2002)이 합격한 바 있다.

● 2008년 고대법대의 밤 행사 개최



“2008 고대법대의 밤 - 축하와 위로, 그리고 격려”라는 제목으로 2008년 사법시험과 각종 경연대회에서 고대 법대가 거둔 최고의 성과를 축하하며, 한편으로는 옥일승천의 기세로 발전하는 와중에 2009년부터 신입생 선발을 중단해야 하는 법과대학의 아쉬움을 위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출범이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과대학 구성원 모두가 계속하여 더 큰 성과를 이룩해 나

가도록 격려하고자 교수진과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작은 파티를 2008년 11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에 CJ그룹 후원으로 개최하였다. 행사는 총장님, 학장님의 축사, 격려사와 재학생 록그룹 및 현악팀의 공연과 가수 김조환의 공연으로 이뤄졌다. 전문 음악밴드의 공연과 함께 간단한 음료 및 다과가 준비되었고, 경품 추첨을 통해 학생들에게 푸짐한 연말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과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장이 되었다.

● 『사법시험 합격자와의 대화』 개최

2008년 12월 8일 월요일에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선후배와의 대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공부방법 등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모임에는 다양한 유형의 합격생들이 자신의 공부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가벼운 다과와 음료도 함께 준비되어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OT



2008년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1차)이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간단한 다과회와 함께 등록안내, 학사안내, 커리큘럼 및 수강신청, 비법학사를 위한 예비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개괄적인 안내가 있었다.

학생소식

교우회소식

● 제14기 튜터링 프로그램

본교 법과대학(학장=하경효 법과대학 법학과)의 2008년도 겨울방학 제14기 튜터링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2008년 12월 22일 월요일부터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중 총 8주 진행된다. 튜터링 프로그램은 학습을 보조해 주는 튜터(tutor)와 신청한 튜티(tutee)가 한 팀이 되어 함께 공부하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으로 여러 시행착오 끝에 얻은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꿈을 향해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선배들을 통해, 학습의 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미 13기 동안의 활동을 통해 유익한 성과를 거둔 많은 재학생들이 튜터링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신청은 2008년 12월 2일 화요일부터 12월 16일 화요일까지 받았다. 신청대상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생 또는 법학 복수/이중전공의 타전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이고 차후 우수그룹과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신청서를 튜터링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튜터와 튜티들은 2008년 12월 22일 월요일 첫모임을 가졌다.

◆ 교우회 소식 ◆

□ 2009년도 定期總會 關聯 會長團 連席會議 會議錄

2008. 11. 14.

I. 日時 및 場所

- 日 時 : 2008. 11. 14(金) 07:30~09:00
- 場 所 :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라움

II. 參席者 : 總35人

- 법대교우회 : 14人
 - 명예회장 : 이기수
 - 회 장 : 송정호
 - 부 회 장 : 이영복, 채영수, 이관희, 이정수, 조옥환, 송인희, 신함, 김영범, 윤제영,

- 상별위원장 : 석영철
- 법대학장 : 하경효
- 총무이사 : 윤춘식

- 학번별 동기회 : 김태선(57)외 14人
- 2009년도 정기총회 준비위원(69학번) : 위원장 이정수외 5人

III. 論議內容 : 2009年度 定期總會 準備 事項

1. 會長 人事 및 當付 事項

- 2009년도 정기총회 일정 및 준비위원회 구성 등 현황 설명
 - 2009년 2월 19일(목) 오후 6시 30분 그랜드인 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준비위원장(이정수), 준비위원(송원택, 김광로, 류도열, 이덕형, 이종연)
-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홍보 및 참석 독려 요청
- 윤춘식 총무이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후임으로 84학번 조영봉 변호사 전화 : 02-591-6600, 팩스 : 02-591-6603) 를 총무이사로 임명

2. 名譽會長 人事 및 學校現況報告

- 이기수 모교 총장이 최근 미주지역순방 등의 결과와 학교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요청

3. 法大學長 法大現況報告

- 하경효 법대학장이 모교에서 2008년도 제 50회 사법고시에 183명이 합격하여 역대 사법고시 최다합격자를 배출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에서 120명 정원에 1,080명의 우수인재들이 대거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고 설명

4. 論議 內容

- 준비위원장 인사 및 협조 요청
- 2009년도 정기총회 예산(안) 및 2008년도 정기총회 결산서 보고

□ 법과대학 교우회 고문단 초청 간담회



12월 2일 화요일 법과대학 교우회(회장=송정호·법61)가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아이리스크룸에서 고문단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6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선 하경효 법과대학장의 법과대학 및 로스쿨 현황 보고와 함께 법과대학 교우회가 모교 법과대학에 2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법과대학 교우회는 내년 2월 19일 목요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 고문단 초청간담회 회의록

2008. 12. 2.

I.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8. 12. 02(화) 18:30~21:00
- 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아이리스크룸

II. 참석자 : 총 51인

○ 법대교우회

고 문 : 김일두(41), 김진웅(45), 이정우(51), 이준승(53), 박수길(55), 박종석(55), 이용만(55), 한호선(55), 김양현(55), 이동호(55), 이종남(57), 허은도(57)

자 문 : 조식원(51), 김형배(53), 구종태(56), 이택석(57), 이해구(57), 강봉구(59), 이각범(59), 이용남(59), 문병대(60), 유재호(60), 김영신(61), 김영우(61), 송정섭(61), 김명신(62), 최형기(63), 유관열(64), 김연태(65), 주선희(65), 송철호(68)

명 예 회장 : 이기수 모교총장(65)

회 장 : 송정호(61)

부 회 장 : 김각영(62), 김정부(63), 이영복(64),

교우회소식

전영주(64), 김종빈(67), 이관희(68), 허준영(73), 김영범(74), 윤제영(74),

상벌위원장 : 석영철(62),

법대학장 : 하경효(71)

총무이사 : 조영봉(84)

- 2009년도 정기총회 준비위원(69학번) : 위원장 이정수 외 6인

III. 논의내용

1. 회장인사

- 고문, 자문역 원로선배님들께서 2008년 한해동안 법대교우회에 베풀어주신 관심에 대한 감사 말씀과 새해건강을 기원
- 회장 임기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차기 회장에 65학번 주선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추대하고 고문, 자문역 선배님들의 승인을 얻음

2. 모교총장인사 및 학교현황보고

- 이기수 모교총장이 우리사회의 고·소·영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조선일보에 게재하였고 오히려 행정권에서 모교출신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
- 모교가 서울대, 연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

3. 법대학장의 법대현황보고

- 하경효 법대학장이 모교에서 올해 제50회 사법고시에 183명이 최종 합격하여 역대 최다합격자를 배출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모집에서 정원 120명 모집에 모교출신을 비롯하여 1080명의 우수재원들이 지원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신입생들을 선발하였다고 보고
-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조건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장학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장학금 모금을 위해 교우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모금계획안을 현장에서 배포

4. 2009년도 하반기 법대후원금 전달
 - 송정호 회장께서 하경효 법대학장에게 하반기 후원금 2,000만원을 전달
5. 김일두 고문님의 격려말씀과 김진웅 고문님의 건배제의
6. 이용만 선배님의 덕담
7. 2009년도 정기총회 준비위원장의 인사 및 협조요청
 - 준비위원회에 법대 2명(박정규, 이상옥) 및 행정학과 출신 6명(권영인, 송윤배, 박성욱, 이동호, 이근태, 오태승)을 추가 위촉, 총14명의 준비위원이 정기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

□ 법과대교우회 기부금 전달식



법과대 교우들의 사랑이 또 다른 환아에게 전달됐다. 2008년 3월 법과대 교우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천만원의 기부금을 병원에 전달했었다. 이번 기부금의 주인공은 한경훈 환아(3세)로 경훈이는 가슴 한 가운데가 들어간 오목가슴 때문에 쉽게 쓰러지고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9월 25일, 법과대 교우들의 기부금을 토양삼아 안산병원 흉부외과 박형주 교수에게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경훈이의 어머니는 “이렇게 주위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집이 멀리 부

산이지만 고려대 법과대 교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高大法大校友會 任員分擔金 (2008年度 年會費) 納付 現況 (2009. 1. 8. 現在)

- 2009. 1. 9일 이후 납부자는 법대소식지 차기호(제54호에 게재 예정)

○ 顧問

구기환(50) 이정우(51) 박종대(52) 서동권(52) 이준승(53)
김인섭(55) 박수길(55) 박종석(55) 이용만(55) 한호선(55)
김양현(56) 이동호(56) 황의빈(56) 이종남(57) 허은도(57)
김기수(58) 김중권(59) 임채정(60)

○ 諮問役

조식원(51) 이석선(52) 김형배(53) 심재우(54) 구종태(56)
이근영(57) 이해구(57) 구용모(58) 손주환(58) 정경모(58)
김수영(59) 이각범(59) 이용남(59) 김극년(60) 문병대(60)
유재호(60) 김영신(61) 김영우(61) 송정섭(61) 유지담(61)
김명신(62) 김복민(62) 김 훈(62) 김재만(63) 최형기(63)
유관열(64) 윤배선(64) 김연태(65) 주선희(65) 김사일(66)
채이식(67) 김성호(68) 박정규(69) 변진학(69) 이귀남(69)
정진호(71)

○ 名譽會長

이기수(65)

○ 會長

송정호(법61)

○ 副會長

김각영(62) 맹건영(62) 이윤기(62) 이진강(62) 김정부(63)
유정주(63) 이팔성(63) 이영복(64) 전영주(64) 오세립(65)
이근용(65) 이기수(65) 이종찬(66) 채영수(66) 김중빈(67)
정유근(67) 이관희(68) 이정수(69) 소진세(70) 이용석(70)
조옥환(70) 송인희(71) 전병현(71) 신 함(72) 홍기중(73)
김영범(74) 윤재영(74) 이호승(75) 허태수(76) 이재현(80)

○ 監事

지상용(73)

○ 賞罰委員長

석영철(62)

○ 學長

하경효(71)

○ 理事

노정현(51) 박승규(54) 엄보현(54) 이원규(54) 최병훈(54)

교우회소식

- 김영기(55) 성낙승(55) 신태희(55) 심상기(55) 윤광민(55)
- 이두정(55) 이연규(55) 김봉철(56) 민경현(56) 이병극(56)
- 주재우(56) 권 석(57) 김대선(57) 송병욱(57) 신우범(57)
- 윤동원(57) 장수영(57) 조동암(57) 황무임(57) 김병용(58)
- 박소연(58) 안치환(58) 이기창(58) 허재영(58) 김광의(59)
- 변중화(59) 송문일(59) 신달석(59) 양신기(59) 윤백현(59)
- 이계철(59) 이기재(59) 이보영(59) 이승하(59) 지용기(59)
- 홍재기(59) 고낙승(60) 박종완(60) 김복주(60) 김영준(60)
- 김진원(60) 노재등(60) 배영호(60) 윤석민(60) 이상진(60)
- 이승복(60) 이종태(60) 고석환(61) 고학용(61) 권혁주(61)
- 김 향(61) 김 호(61) 김문웅(61) 김입근(61) 김종영(61)
- 김종태(61) 김충조(61) 김화남(61) 남궁진(61) 남상철(61)
- 민병서(61) 민호기(61) 박연자(61) 박재홍(61) 박종오(61)
- 박종환(61) 박창규(61) 백길구(61) 백중현(61) 송기원(61)
- 신광옥(61) 신순우(61) 신응순(61) 신정웅(61) 안윤식(61)
- 여정휘(61) 유병길(61) 이경재(61) 이기웅(61) 이기철(61)
- 이우근(61) 이용환(61) 이종석(61) 이현희(61) 이홍식(61)
- 이희준(61) 전병철(61) 조성하(61) 주성수(61) 차영준(61)
- 최순강(61) 하양명(61) 한용제(61) 허경석(61) 홍창대(61)
- 황서수(61) 김대운(62) 김지수(62) 신정치(62) 신현호(62)
- 유세준(62) 윤성립(62) 정계남(62) 채창남(62) 최중문(62)
- 김석조(63) 손평엽(63) 오방남(63) 정성욱(63) 정태련(63)
- 홍병래(63) 김지환(64) 이용부(64) 이택천(64) 박성도(65)
- 신창준(65) 양상훈(65) 주대경(65) 권영석(66) 권오덕(66)
- 김기신(66) 도규만(66) 배무중(66) 안영기(66) 양태종(66)
- 이만희(66) 정장섭(66) 금병주(67) 박근영(67) 박응복(67)
- 박장선(67) 박종국(67) 양동석(67) 윤종태(67) 이광순(67)
- 이우윤(67) 장재경(67) 김정달(68) 노태기(68) 권오봉(69)
- 김광로(69) 송원택(69) 오태승(69) 윤여선(69) 이창흡(69)
- 김수만(70) 김중성(70) 김중원(70) 김중기(70) 나천수(70)
- 배종대(70) 서현수(70) 이승계(70) 이승창(70) 조상호(70)
- 김용진(71) 김중진(71) 남일호(71) 이상호(71) 이성규(71)
- 이영근(71) 인택환(71) 조성익(71) 김선홍(72) 임동호(72)
- 전운기(72) 홍준표(72) 강계두(73) 강병규(73) 강종원(73)
- 김수창(73) 김찬근(73) 박원세(73) 백성운(73) 오세욱(73)
- 이경재(73) 임상현(73) 정주식(73) 차남규(73) 이춘희(74)
- 정교순(74) 조성규(74) 허병익(74) 김형진(75) 노환균(75)
- 송영중(75) 최승순(75) 김성갑(76) 최용규(76) 박상욱(77)
- 박진홍(77) 서보현(77) 성용락(77) 심재곤(77) 임영철(77)
- 장의성(77) 전만수(77) 정은조(77) 최중현(77) 한상대(77)
- 국중돈(78) 길태기(78) 김승섭(78) 김영혜(78) 심동섭(78)
- 이춘호(78) 장영수(78) 최중우(78) 고규영(79) 권오용(79)
- 김민재(79) 오세훈(79) 정동민(79) 홍승기(79) 이주영(80)
- 강전찬(81) 최병규(81) 임영호(82) 한대삼(82) 이정현(83)
- 윤춘식(84) 이진태(84) 황운영(84) 서장은(85) 송태섭(85)
- 이철진(85) 정철규(85) 강승원(87) 태원우(87) 송인권(88)
- 안병민(88) 신희철(89) 이병준(89) 이상진(89) 박민정(90)
- 유현식(90) 허용행(90)

※上記 入金人께서는 總務理事
(Tel:031-978-1905, korea@yooni.com)에게
連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任員分擔金(年會費) 納入 計座

은행계좌	하나은행 214-910013-81904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지로번호	7650479
분담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문, 자문역 : 500,000원/년 ○ 회장 : 3,000,000원/년 ○ 부회장, 감사 : 1,000,000원/년 ○ 이사 : 100,000원/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주소 : (137-87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1번지
서보빌딩 3층
전화 : 02-535-8900 팩스 : 02-535-8870

※ 문의사항이나 주소 등 변경이 있으신 분은
총무이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特別後援金

안순덕(59) 300,000원(2008/06/12)

○ 姓名 未詳

2008/03/19 100,000원
2008/03/27 100,000원
2008/03/27 100,000원
2008/04/18 100,000원
2008/07/04 100,000원
2008/07/22 100,000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우회

총무이사 조 영 봉 (법84)

전 화 : 02-591-6600

팩 스 : 02-591-6603

이메일 : jybong6600@hanmail.net

김명신 (법62) 선배님을 찾아서



▶ 건강은 어떠신지...

건강은 한 4년 전에 심장수술을 하려다 수술도 못하고 나온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치료도 하고 노력도 하여 지금은 수술 안 해도 될 정도가 됐어요. 수술하기 한해 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난 다치지 않고 그때 살아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고, 심장수술 안 하고 살게 되서 제3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든 요긴하게 써서 태어난 보람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건강이 안 좋아진 것도 개인 비즈니스 때문이 아니고 공익적인 캠페인이나 봉사활동에 심취하여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남은 건 체중과 배만 남은 겁니다. 왜 그런지 내 자신도 모르겠는데 집사람이 돌은 것 같다고 할 정도예요. 내 개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주위업계의 일이나 큰 사회적인 캠페인 등에 물심양면으로 하다 보니... 지금도 내 책상위에 보면 청와대에 브리핑한 것, 그 후속조치 등 그런 것 밖에 없어요.

▶ 요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요즘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식재산포럼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를 국회에 법인 설립하고 국가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

핵심은 간단히 말하자면 국토는 좁고 천연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고 종래의 산업구조로 5천만이 살기는 힘들 것 같아, 국가생존전략으로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본 끝에 지금은 두뇌전쟁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 분야의 캠페인이 좋을 것이라고 보았어요.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 일본사람은 지적재산이라고 번역을 하고 우리는 지식재산이란 말을 쓰는데 '지적'이란 말에 대해 땅 번지수에 관련된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굳이 지식재산이란 말을 쓰고 대만사람들은 지혜재산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식재산, 두뇌재산, 무체재산 이것으로 국가생존전략을 수립하면 어떨까 하여 그 법안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 국회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방송, 신문, 대학 등 전국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지식재산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선례로는 고이즈미 총리가 2001년 11월에 일본에서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일본도 현재 자기가 가진 산업구조로는 100년 뒤에 나라가 생존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을 통과시키고 총리가 위원장인 지적재산전략위원회를 만들어 관계부처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책을 그 위원회에서 조율하고 예산도 지침을 주고 하는 것 등을 보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 보면 좋겠다 싶어 하고 있는데 엄청 힘들어요. 지금 만 4년째 끌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17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었고, 다행히 18대 국회에서는 마침 정부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여 청와대 담당 수석비서관한테 그 취지를 브리핑하고 후속 콘텐츠를 달라고 하여 1월 13일 지식재산포럼 이사회에서 확정된 문안을 오늘 청와대로 보내는 것까지 왔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관심 있다고 한 정도까지 온건 성공인데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지금부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일은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의 회원이 전국 8만5천명이고 이러한 회원들을 위한 월간 잡지에서 편집인을 맡고 있는데, 2월 19일이면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전엔 격월간 잡지였는데 월간으로 바꾸었어요.

▶ 평소 취미 생활은...

골프는 올림픽 정신을 존중해서 참가하는데 의

미를 두고, 취미라 하면 내가 변리사 업계에서 전 세계적인 악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악단장입니다. 드림을 하고 있고, 악단의 멤버가 21명인데 한나라 한명씩입니다. 이게 제일 즐겁고 일 년에 한차례씩 멤버가 꼭 만나서 연주합니다. 1997년 호주 국제대회 때 시작되었는데, 변리사 국제대회 때 개인적으로 호텔방을 빌리고 해마다 연주할 사람을 모으다 보니, 지금은 21명이 됐고 마지막 파티 때 어느 나라나 직업적인 악단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대회장을 장식할 정도가 되었죠. 지금은 지원자가 많아서 첫째, 자기 악기를 가져 올 것, 둘째 하루 전날 올 것, 왜냐하면 리허설이나 오디션을 해 봐야 하니까 그리고 셋째, 그 사람의 퀄리티를 봐서 과반수의 멤버 이상이 오케이 해야 멤버가 되고 또한 멤버가 되도록 자기 레퍼토리에 대해서 사람 이상이 써포트해줘야 연주가 가능합니다. 제일 공연 오래한 것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 반에 끝난 것인데, 쉬는 시간 없이 했던 가장 긴 공연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학교밴드의 악장이었던 것이 인연이 되었고, 고등학교 때는 취미삼아 왔다 갔다 하며 배웠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예전의 동화백 화점 위에 동아방송 전속악단이 있었는데, 거기의 김광수 악단장에게 부탁하여 취미로 6개월 동안 드림을 배웠죠. 그 후로는 집에 흠바를 만들고 드림을 사고 피아노와 가라오케를 준비하였는데, 같이 피아노를 쳐주던 딸이 시집간 후론 거의 안하죠. 지금 밴드마스터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 고민 중이에요.

▶ 가족 이야기...

아들애는 원래는 사진을 하다 미국 가서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하고 와서는 우리 사무실에서 각종 사건 기일 체크 등, 전산관리와 총무를 보고 있는데 그 일을 하다 2008년 6월에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여 대학로에서 식음료사업을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금융위기가 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딸은 이화외고를 나왔는데 내가 법대를 다니면서 독일어를 하고 유럽에서 국제회의 때 많이 쓰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불어공부를 권하여 대학은 연세대에서 불문과를 나왔고 시집가서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 오랜 기간 변리사로 활동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보람된 일이 있으신지...

특허법원설립 캠페인을 했어요. 법원조직법을 바꾸었으며 특허법원을 설립하였어요. 원래는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자, 왜냐하면 일반 법률만 전공한 판사는 기술관계 침해소송의 내용을 이해 못 하니까 소송은 장기화되고 어느 정도 일하다 전근을 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도입하자는 거였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혀 기술 심리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한 거죠. 그 다음은 변리사시험 과목을 바꾼 일이에요. 내가 처음 개업을 한건 72년인데 그때만 해도 미국변리사 한 사람이 와서 어떤 침해사건이나 라이선스 계약관계를 논의하려면 한국에서는 변리사, 통역사, 변호사 이렇게 미국변호사와 3대 1로 만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기술전공인 이공계계통 사람은 자기 전공분야를 물론 공부해야 하고 법률 전반에 관한 공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어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변리사가 제대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많은 반발들을 설득한 후에 97년에 민사소송법을 2차 필수과목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선견지명이었던 얘기를 듣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형사 판례집을 97년도에 처음으로 발간한 일이에요. 전국 법원을 다 뒤져 판례집을 처음으로 낸 거죠. 역시 97년도에 변리사회관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항상 세들어 있다가 내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모금도 하고 어렵게 지었죠. 그 다음에 변리사들에게 매년 3개월씩 민사소송 실무를 연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97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연수를 하고 있어요. 그땐 무슨 근거로 사법연수원 교수로 하여금 연수하게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변리사회는 특별회비 제도를 만들어 이 중 일부는 회관 기금으로 일부는 연

금기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하던 실용신안의 무심사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중소기업에 안 좋다 하여 반대 입법운동을 했죠. 결국 심사청구를 하는 사건만은 실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타협하였죠. 대한변리사 회장을 96년에서 98년까지 2년간 했고 아시아변리사협회 회장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3년간 했는데 큰 일은 변리사로서보다도 오히려 봉사단체에서 하였죠. 평양에 라이온스 단체에서 650만 달러를 들여 안과병원을 설립한 일도 있었어요. 아마 NGO에서 북한을 도운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싶고, 월드컵 개막식을 앞두고 상암동에 지금의 공원을 만들어 놔는데 판자촌을 들어내고 설득하여 공원을 만든 일 등 남들은 힘들어서 안 하는 일이 왜 모두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허허. 그거 하구 감사패 하나 받은 게 다예요. 특허법원 설립캠페인하고 받은 건 김대중 대통령한테 받은 동탑산업훈장 하나예요. 6년간 뛰어다녔으니 엄청 비싼거죠. 그리고 내가 소속한 서울남산라이온스클럽의 지금 회원은 32명인데 해마다 어려운 사람들 백내장 수술해주는 것, 그게 의료보험으로 하면 5~60만원 밖에 안 받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면 병원에서 눈 수술 안 해주는데 우리는 해줍니다. 지금까지 국내 외 약 3900명 정도 되요. 특히 인공수정체를 넣어 수술 후 안경을 안 써도 되는 아주 고급 수술이에요. 시골에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해 줘요.

그러다 보니 사무실 확장도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했죠. 제가 국내 사건 수임도 많이 하고 전업에 충실했으면 아마 지금 직원 몇백명 됐을 겁니다. 하지만 몇백명 되면 뭐합니까. 임대료 안 내는 건물에 직원이 번 것, 자기들 월급으로 쓰고 하니 만족합니다.

- ▶ 2005년에 지식재산포럼을 창립하셨는데, 그 의의나 목적은...

지식재산포럼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인 지식재산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가적 차원의 경쟁대상이 되고 나아가서 새로운 국가발전 계획의 근간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에 마련된 포럼입니다. 지식재산이란 발명,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공학상의 새로운 발견, 기술비결, 영업비밀 등 영업상 정보, 식물신품종, 컴퓨터프로그램, 전통지식, 전승물, 원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 과학적 발견, 아이디어, 캐릭터, 영화, 드라마, 음악, 글자체, 상호, 초상권, 도메인네임, 반도체칩 설계, 콘텐츠,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인공지능 및 통신기술 등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말하는 이른바 무체재산을 총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고 로얄티를 외국에 지불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이 취약한 가운데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하여 볼 때, 두뇌전쟁시대에 국가생존전략으로서 지식산업의 육성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잠재적 창의력을 집대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식산업을 비약적으로 육성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제일의 지식재산 강국이 된다는 국가목표 아래 대학, 교육, 기업, 행정, 외교, 입법 및 사법 등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거국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처의 합동회의가 필요해서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구의 창설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기구의 신설과 획기적인 정책운영 등을 위해서 지식재산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식재산의 진정한 파워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양쪽의 전문가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서로 코오퍼레이션하는 겁니다.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의 창조와 보호가 인재를 기르는 지름길이다, 지식재산의 힘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에서 나온다, 지식재산만이 미래의 살길이다, 지식재산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선언 아래 각종 전략을 연구하고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변리사협회 회장,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작분야의 분위기는 조성은 아직 멀었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어느 정도 국제적인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고, 지적 재산권의 활용문제에 가서는 아직 멀었고,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도는 어느 정도 됐는데 실무는 아직 분발해야 한다는 거죠.

▶ 변리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학교로 가는 사람, 또는 변리사 실무를 하는 사람, 또는 회사 인하우스 카운슬러로 가는 사람 또는 연구소로 가는 사람 등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로 외국에서 공부한다면 모두 미국에 가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안 좋고 시야를 넓혀라, 그리고 외국어는 영어 하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것은 공용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세컨드 랭귀지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예전과 달리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들 중에 문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상표법 전문가가 없어, 개업해서 20여년 된 사람을 데려올 정도예요. 전문가가 필요한데 언어 감각이나 외국어에 대한 지식 등이 없으면 안 되요. 법률지식도 있어야 하고...

돌아가신 이윤영 선생이 나를 변리사 업계로 인도하신 분인데 당시에는 사법시험에 20여명이 합격하던 때예요. 그래서 딴 길을 찾다 보니 그 분이 변리사란 제도가 있는데 당분간은 엄청 고생해야 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진짜로 고생 많이 했어요.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봉이 김선달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구걸하고 엄청 고생했죠.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의를 지키는 것과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국가에 무언가 플러스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좀 밀치고 살더라도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기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 고대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호연지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스스로는 좀 손해보고 주위에 이익을 좀 더 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빠져 나가려고 하고 사회만 탓한다면 사회가 더 어지러워지는 것 아닌가 합니다. 토론을 하든, 토의를 하든, 회의를 하든, 특히 회의 문화에 있어서 고대 출신들이 웅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회의는 단시간에 공통된 이슈를 위해서 최대공약을 찾는 과정이고, 조리 있게 차분하게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점에서 세련되지 못한 게 특히 고대 출신들이 많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호연지기를 키우되 좀 세련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주요약력

- 1966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71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 1969 제8회 변리사시험 합격
- 1982-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1988 사법연수원 강사
- 1991 아세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 1992 제29회 변리사 시험위원
- 1992 서강대학교 강사
- 1995-현재 서울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1996-1998 대한변리사회 회장
- 1998-2000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 2000-2003 아세아변리사협회 회장
- 2001-2002 국제라이온스협회 서울지구 총재
- 2005-현재 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

◎ 표창

- 1986 내무부장관 표창장
- 1994 특허청장 표창장
- 1998 대통령 동탑 산업훈장
- 2002 서울특별시장 감사패
- 2002 국제라이온스협회장 친선대사상
- 2005 한국중재학회 국제거래선용대상

◆ 동기회 소식 ◆

법대61 동기회 양로원 위문품 전달 및 야유회



법대61학번 교우회(회장 주성수)는 2008년 10월 27일 월요일 충남 서산군 간월도, 상왕산 개심사 일원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다. 34명의 교우들이 참석한 이번 야유회에서 교우들은 동기간의 우정을 돈독히 다졌다. 주 교우는 “교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법대 61 교우회는 2008년 9월 24일 수요일 서울 천호동 소재 한국 소리교회 소속 소리마을 양로원을 방문하여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대형 벽걸이 텔레비전 한 대를 기증했다.

법조인 교우회 정기총회 및 신입교우 환영회



법조인 교우회(회장=김종빈·법67)는 11월 7일 금요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교우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신일 교우회장과 송정호(법61) 교우회 수석부회장, 김일두(41정법) 법조인 교우회 초대 회장, 이진강(법62) 대한변협회장, 오세훈(법79) 서울시장, 김성호(법68) 국정원장 등 100여명의 교우와 100여명의 사법연수원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종빈 법조인 교우회장은 “고대 법조인은 고대 정신을 지닐 기회와, 국가와 사회에 기여

할 기회라는 두 개의 큰 선물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며 “빛나는 전통을 발전시키는 핵심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수 모교총장은 해외 출장 관계로 축하영상메시지를 보내와 “올해 가장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모교가 법조계에서 무궁한 발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97세로 최고령인 김병두 교우도 영상을 통해 “보고 싶은 후배들이 많지만 건강관계로 불참해 죄송하고 젊은 후배들의 좋은 활약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신일 교우회장은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도 법조인 교우들의 단결된 지혜로 슬기롭게 대처하리라 확신하며 교우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축사했다. 김일두 법조인 교우회 초대회장은 “법조인 교우회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늘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성법조인 교우회 신년 교례회

여성법조인 교우회 신년 교례회가 1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교우회관 2층에서 열렸다. (김현정 총무 ☎010-3736-3479)

여성법조인교우회 장학금 전달식



2009년 1월 9일 금요일에 여성 법조 교우회(회장=김영혜·법78)의 ‘여성 법조 교우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50여명의 여성 법조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혜 여성 법조 교우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기수 모교 총장, 국가정보원장으로 있는 김성호(법68) 교우, 고대여자교우회장인 나길자(법62) 교우의 축사로 그 막을 열었다. 여성 법조 교우회 측은 “지금까지 받았던 혜택을 모교에 환원하겠다는 지난 2005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경위를 밝히고, 지난 해 연말과 올해 초 동안 교우들로부터 모금된 장학기금을 모교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찬희(법51) 교우, 송정호(법61) 교우, 이향애(의학65) 교우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法大 67 同期會 2009년도 新年會 / 정기총회

2009년도 법대67학번 교우회 신년회 및 정기



총회가 1월 19일 오후 7시 대치동 소재(선릉역 부근) 상제리제에서 열렸다. 이관형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008년도 결산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2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회장의 후임 선출에서 양동석 변호사가 단독추천 만장일치로 차기 동기회장에 선임되었다. 뒤이어 총무에 차문길 사장이 임명되고 소모임 간사는 산우회에서 김학주, 기우회에서 박장선, 골프회에서 최한수가 각각 선임되었다. 차기회장 임기는 2년이다. (회장 양동석 변호사 ☎ 010-3060-1779, 총무 차문길 사장 010-7272-3272)

◆ 화제의 교우 ◆

아프리카 어린이 식비지원 이연진 교우



3년 동안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 매달 식사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이연진(법01) 교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구지법 판사인 이 교우는 임관 후 첫 휴가로 에티오피아 자원봉사를 택했다. 한국국제봉사기구(KVO) 지부에서 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 교우는 대학 1학년 때 통역 자원봉사를 하면서 KVO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빈곤 아동들을 접하게 됐고 법률가가 돼 국제기구에서 빈곤 퇴치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 것이다. 이 교우는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돼 법관 일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저개발국가에 대한 후원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교우 동정 ◆

조선일보 편집국장 및 문화공보부 장관을 역임한 후 30여 년간 사진작가로 활약해온 윤주영(44 정법) 교우가 사진집 <우리시대를 이끌어 온 사람들 50인>을 발간하고 지난 10월 15일부터 21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기념 사진전을 개최했다. <우리시대를 이끌어 온 사람들 50인>에는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남덕우 전 총리, 소설가 박완서, 영화감독 임권택 등 주요 인사 50인의 사진과 어록이 실려 있다.

미국 하와이에 소재한 Kbfd-TV 회장인 정계성(법54) 교우가 미국 센트럴 미주리대 인문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다. 정 교우는 비즈니스와 지역사회를 위해 이룩한 업적이 인정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2009년 5월 졸업식에서 인문학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신임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고태용(행정61) 교우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계가 통합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나서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주식회사 워터스 회장 배경석(법61) 교우가 지속적인 기술개발,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념,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등의 공적으로 2008년 9월 26일 금요일 사단법인 대한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08년 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박해진(행정62) 교우가 취임 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을 도내 최고기관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최초로 이사장에 3회 연속 연임됐다. 박 교우는 2007년 경기도 공공기관 CEO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됐다.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유병화(법68) 교우가 로마에서 개최된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제63차 총회에서 집행이사로 4번째 연임됐다.

교우소식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이장희**(법69) 교우가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국가 승계문제와 그 정책 대안'이라는 주제로 2008년 10월 23일 목요일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48회 아사연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서현수(행정70) 교우가 2008년 12월 2일 대구 지방국세청장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서 교우는 안동세무서장과 국세청 소비세과장 및 조사국장 직대를 거쳐 서울청 조사2국장을 지냈다.

2008년 8월 **조상호**(법70) 교우가 재단법인 한국기원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조 교우는 도서출판 나남의 대표이사로 2005년 제37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문화부문)과 2001년 제12회 간행물 윤리상(출판제작부문) 등을 수상했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남일호**(행정71) 교우가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남 교우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1983년 체신부에서 감사원으로 전입한 이래 특별조사국장, 전략감사본부장, 기획본부관리실장, 제2사무차장,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안동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손진상**(법71) 교우가 2008년 11월 10일 대통령으로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한 작년에 이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11월 17일 제50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으로 위촉 받았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통일교육위원 경북협의회 회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 중인 손 교우는 국립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행정경영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호남출신으로 지역과 사회갈등해소를 화두로 20여 년간 경북지역에서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송인희(행정71) 교우가 웅진해피올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다. 송 교우는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위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등을 거쳤다.

이승재(법72) 교우가 중부지방국세청장에 2008년

12월 26일 임명됐다. 이 교우는 모교 법학과를 졸업 후 행정고시 22회로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 광주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대덕특구지원본부 이사장으로 취임한 **강계두**(행정73) 교우가 2008년 12월 8일 월요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강 교우는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담당장,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 행정학과 교수인 **염재호**(행정73) 교우는 2008년 10월 22일 수요일 시사저널 기고를 통해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함께 가꾸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히며 “제대로 된 소통의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쌍방향 소통 수단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 29일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 본부장을 역임했던 **채천석**(법73) 교우가 충북개발공사 2대 사장에 선임됐다. 채 교우는 1982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토지공사에 근무하면서 충북지역본부장 등을 거쳤다.

김광조(행정74) 교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엔의 산하 기구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에 임명됐다. 아태지역본부는 산하 47개의 사무국이 있는 최대 규모의 본부이다. 임기는 2009년 1월부터 2년 동안이다.

이경재(행정77) 교우가 대표로 있는 (주)한국성과향상센터는 세계적인 리더십 컨설턴트이자 경영 석학인 스티븐 코비 박사를 모교 화정체육관에 초청했다. “디지털 시대의 성공 리더십”을 주제로 한 이번 ‘제7회 시간관리 페스티벌’은 2008년 12월 5일 금요일 개최됐으며 약 8000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장인 **오세훈**(법79) 교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장벽이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으로 장애인 고용터전 마련,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공급, 서울 지하철 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육군 준장인 **최재석**(법81) 교우가 제6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최 교우는 취임사를 통해 “책임기간 동안 사법행정의 선진화와 소속 직원

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군사재판의 모범적 전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우는 제8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등소평 이론가로서 중국천북신천 법인장을 맡고 있는 **이필주**(법82) 교우가 주간 <중국신문> 객원논설위원에 취임했다. 이 교우는 현재 교우회 중국연합 운영위원장과 북경지부 총무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고검 부장검사인 **이상대**(법84) 교우는 2008년 11월 27일 대법원에서 열린 범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이 교우는 평소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 청소년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개별 상담, 110회에 이르는 헌혈, 민원인 10여명으로부터의 감사편지 수령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여 주었다.

◆ 영진 교우 ◆

국세청 차장 허병익 교우



2009년 1월 26일 국세청 신입 차장에 **허병익**(행정74) 교우가 임명됐다. 허 교우는 모교 졸업 후 행시 22회로 중부청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역임했다.

◎ 약력

- 국세청 정세심사국 정세과 근무
- 마산세무서 조사과 과장
-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 과장
- 국세청 납세지원국 납세자보호과 과장
-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 국세청 부이사관
-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장
- 국세청 조사국 국장
- 부산국세청 청장
- 국세청 차장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유명학 교우

유명학(행정75) 교우가 2008년 10월 23일 목요일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유 교우는 보건복지 분야 주요 업



장 등을 지냈다.

무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서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유 교우는 1979년 행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보건사회부 질병관리과장, 보건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총무과장, 공보관, 정책홍보관리실

◎ 약력

-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 보건사회부 연금제도와 행정사무관
- 세계보건기구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과견근무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과장
- 보건복지부 공보관
-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인구가정심의관
-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실장
-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조정실 실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감사원 사무총장 성용락 교우



1사무차장 등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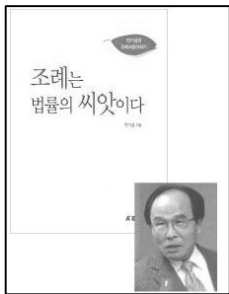
감사원 제1사무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성용락**(법77) 교우가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성 교우는 행시 24회로 1984년 국세청에서 감사원으로 전입해 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재정·금융감사국장, 기획홍보관리실장, 제

◎ 약력

- 국세청 근무
- 감사원 법무담당관
- 감사원 국제협력담당관
- 감사원 총무과 과장
- 감사원 법무심사관
-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국장
- 감사원 기획홍보관리실 실장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감사원 사무총장

◆ 교우 신간 ◆

●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 전기성(행정56) 교우 저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는 필자인 전기성 교우가 지난 15년 동안 모교,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를 비롯하여 공무원 교육원과 자치단체에서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월간 《자치발전》에 ‘조례사랑 이야기’ 연재를 한 것과 희망제작소에 ‘전기성의 조례사랑이야기’로 연재한 것들을 모아 보완해 펴낸 책이다. 조례를 포함한 법규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이들 법규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차라리 없는 게 좋을 법규도 있다. 그런가 하면 있어야 할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이른바 ‘침묵의 법’도 있다. 이 책은 이런 법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얽힌 이야기나 조례를 통하여 법령을 보면서 느끼는 생각을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랑방에서 이야기 하듯 흥금을 털어놓고 얘기해보자는 취지의 글이다. 따라서 필자는 학문적인 어려운 법률 이론은 가급적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 책을 썼다. 현재 전 교우는 1998년 좋은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교수들과 ‘한국입법학회’를 창립해 활동 중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생활이 편안해진다.’는 평소의 소망을 실천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만든다면 이 책은 소중한 담론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 교수는 “이 책이 앞으로 국가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에 편안함을 가져오는 길잡이가 되리라고 확신한다”며 이 책의 추천사를 밝히고 있다. [A+중앙교육 / 19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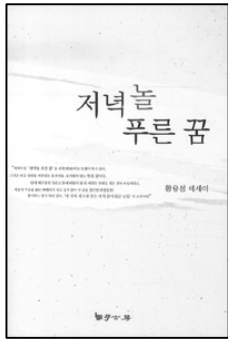
● 사회변동과 한국 가족법 / 김성숙(법61) 교우 저



네 차례에 걸친 한국가족법의 대폭적 개정은 전통규범으로서의 가치에 매달리던 규정들이 현대를 사는 이들의 새로운 이념체제로 개선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체계나 내용에는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독신가족·한부모가족·미혼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 법률혼 외의 동거관계를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 인공수정자의 친생 추정을 비롯해 생명공학의 발달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한국가족법 규범 중에서 구조적 문제가 있거나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져 규범으로서의 효용성에 결함을 내포한 규정들에 대하여 개정·폐지·신설 등 입법론적 제안을 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18편의 논문을 모은 것이다. 혼인과 약혼에 대한 법규, 재산분할제도 등 가족법 전반을 주제별로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 사례를 들어 한국 가족법 규범의 여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가족법교수로서 지난 26년 동안 연구한 논문들을 모아 엮은 것이므로 더러는 현행법 해석이 아닌, 구법에 대한 사적(史的)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읽는 이들의 편의를 위하여 각주로 각 논문의 발표연도를 표시하였고, 내용이 개정된 논문들은 맺는말 다음에 〈후기〉를 붙여 변경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남 / 64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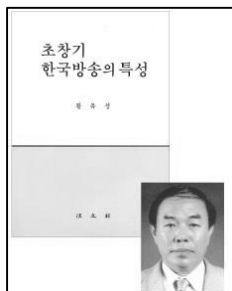
● 저녁 놀 푸른 꿈 / 황유성(법학61) 교우 저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기 마련이다. 황유성 교우는 이 책에서 ‘들려주고 싶은 얘기’ 58편을 수필로 실었다. 저자는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다정한 친구와 얘기하듯 풀어갈 요량이었으나 뜻대로 된 것 같지만은 않다”며 아쉬운 마음을 털어 놓는다. 그러나 절망을 거부하는 몸짓이요, 포기하지 않는 푸른 꿈이라는 이 책을 관류하는 컨셉에 따라 《저녁 놀 푸른 꿈》은 소중한 에세이집으로 재탄생했다. 달에 떼구름이 가리고 꽃에 바람이 불듯 세상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제풀에 무릎을 꿇는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아 이 글을 썼다는 황 교우. 독자들은 가치 있는 체험을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예술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수필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학교방 / 395면]

● 초창기 한국방송의 특성 (일제 및 미 군정기 방송) / 황유성(법학61) 교우 저



흔히 언론은 ‘역사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또 ‘시대를 바라보는 창(窓)’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거울과 창을 통해 바라본 역사가 모두 진실한 것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모두 담아낼 만한 거울이나 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방송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동일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도 인식과 해석이 다르고 평가가 엇갈린다. 특히 가장 원초적인 한국 방송의 시원(始原)조차 명확히 가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준다. 한국 방송사의 기점을 밝히는 문제는 한국 방송의 정통성을 가려내는 작업으로서 한국 방송문화의 전통을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 논의만 분분했을 뿐 아무런 결정이 없었던 ‘한국 방송사의 기점’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기점(起點)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을 때, 역사의 진실과 가치관은 왜곡(歪曲)되고 전도(顛倒)하며 올바른 방송문화의 정립에도 장애를 줄 것이 분명하다. 논점은 바로 일제 강점기의 방송을 ‘한국의 방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지만 찬반은 엇갈려 있다. 방송학과 언론학으로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자 했던 황유성 교우는 이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 방송사의 기점을 밝히려 하고 있다.

[법문사 / 341면]

● 민법강의 (제7판) / 지원림 법과대학 교수 저



민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으며 역사적·비교법적인 고찰은 가급적 자제하였다. 그리고 판결의 사실관계를 분해하여 사례로 제시하고 판례의 요지로 답하는 것을 지양하였으며 학설의 대립이 심하거나 개념의 이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1편의 서론에서는 민법의 의의, 법원, 기본원리, 민법의 적용 및 해석, 민법의 효력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제2편 민법총칙에서는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의 변동, 기간, 소멸시효, 그리고 제3편 물권법에서는 물권법 서론, 물권의 변동, 기본물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제4편 채권총론에서는 채권법 서론, 채권의 발생, 채권의 목적, 채권의 소멸, 채권관계의 장애, 책임재산의 보전,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제5편 채권각론, 제6편 친족· 상속법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홍문사 / 2039면]

방임적 계약자유를 경계한다



송 종 준(법76)

총복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터진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초대형 금융회사들이 파산하고, 이런 여파는 전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몰고 오는 한파가 너무나 광범위하고도 혹독한 것 같다.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고용시장, 상품 시장이 모두 뚝뚝 얼어붙고 있다.

우리에게 동토의 계절을 안겨준 것은 신자유주의이론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합리성을 전제로 시장에서의 모든 행위는 시장 주체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맞길 것이지, 정부나 감독기관이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이른바 방임적 계약자유로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는 없애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얼마든지 비합리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방임적 계약자유에 터 잡은 인간의 탐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모든 투기적 현상은 이 탐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에는 거대한 도박판에서나 적용되는 게임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판돈을 날릴 위험을 수학과 통계이론으로 잘 무장된 공식에 따라 누군가에게 떠넘기기만 하면 이론적으로는 항상 대박을 터트릴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이라는 거대한 수익률 게임판에서 인간의

탐욕이라는 변수는 판돈을 키우는 숨겨진 요소로서 법과 제도에 의하여 존중되었던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이론에는 남의 돈을 빌려 무한대의 수익을 피하고자 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지배하고 있다. 모든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맡기면 되고 합리적인 시장은 그로 인한 폐해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거나 통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뇌관과도 같은 것이다.

계약자유 원칙을 명분으로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현상은 기업경영자의 보수와 퇴직금계약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번의 금융위기를 자초한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최고경영자 1인이 받는 연간 보수가 약 2500만 달러이었고, 월츠 디즈니 그룹에서 고작 1년 4개월 봉직한 CEO에게 지급된 퇴직금만도 1억 4천만 달러라고 한다. 방임적 계약자유는 소수의 시장권력자에게 황금을 안겨주고 구성원의 공동이익은 경시되어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오늘과 같은 전세계 시장의 실패는 인간의 탐욕마저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는 오만한 합리적 시장이론이 가져온 재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인간의 탐욕을 키운 방임적 계약자유라는 안전판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 해이가 극대화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결코 그 예외의 범주에 있지 아니하다. 법과 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인간의 탐욕이 더 이상 활개 치는 것을 막고 사회 구성원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보다 현명한 절제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